

3/30(수) 삼하 13-15장 부메랑에 맞은 다윗

다윗은 왕가를 이룰만한 세상적 지지기반이 약했습니다(삼상18:23).

다윗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<혼인>에 진심을 다했습니다.

다윗은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됩니다(삼상17:25, 18:27, 22:14).

도피생활 중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고(삼상25:39,43), 미갈은 재혼합니다(25:44).

두 아내의 출신 및 기반은 <유다 왕>에 오를 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(삼하1:2-3).

다윗은 북이스라엘과 맞닿은 그술의 공주와도 혼인을 맺었는데(압살롬의 어머니, 3:3),

북이스라엘을 견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.

다윗은 아브넬과 협상하면서 전처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(3:12-13).

북쪽 지파와 통일할 때 <사울의 사위>로서 정통성을 내세우려는 의도였습니다.

이미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린 미갈은 눈물 속에 남편과 이별합니다(3:16).

그리고 전 남편 다윗과 결합했으나 불화했으며 자녀가 없었습니다(6:20-23).

다윗은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하고 후에 아내로 맞았습니다(11:2).

완전범죄를 피하려다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를 더합니다(11:15).

“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(11:25).”

다윗이 요압에게 한 말은 다윗 가문에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.

“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(12:10).”

인위적으로 쌓아올린 다윗의 세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.

악에 더 큰 악을 행하는 암논의 모습이나(13:16, 출22:16-17, 신22:28-29 참고),

살해에 용기를 북돋우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많이 닮았습니다(13:28, 11:25 참고).

<혼인>덕을 보려던 다윗은 배다른 왕자들의 힘겨루기로 결국 세 아들을 잃고 맙니다.

(13:28-29, 18:14-15, 왕상2:25)

하나님은 다윗 왕실을 견고히 세우려 하셨습니다(7:8-13).

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자기 성을 쌓다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.

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다윗, 그는 다시 <광야>로 돌아갑니다(15:23).

나는 스스로 나의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?

❶ 학연, 지연, 혈연, 처세 등 인위적 방식으로 나의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?

❷ 성공을 위한 인위적인 방식들이 부메랑처럼 나를 친 경험이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삼하 13-15장